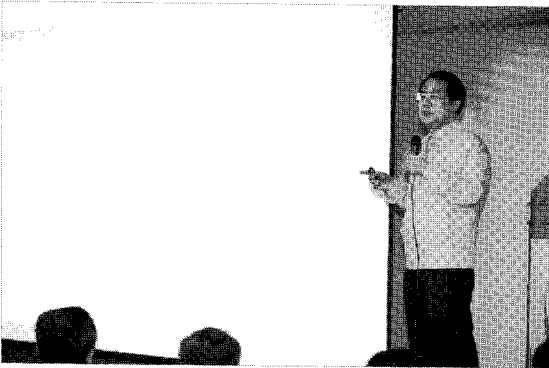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25개 품목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워크숍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13~14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소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장태평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5개 품목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수산물 25개 품목의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안)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품목단체,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해 품목단체, 전문가와 의견교류 및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장태평 장관은 특강을 통해 우리 농식품산업의 발전가능성, 강한 농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 등을 설명하며 품목단체들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총괄하는 품목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단체, 전문가, 담당공무원이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육분야와 관련해 생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국내 육계생산 방식이 중소형 닭 일변도로 다양한 신수요 창출이 불가능하고, 유통·가공단계에서는 육계 유통단위가 불리함에 따라 농가 및 업체에게 금전적으로 손실이 있으며, 수출·소비 단계에서는 획일화된 삼계탕 제조로 수출에 한계가 있어 대닭 생산체계를 도입해 현재 1.5kg을 2.5kg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사양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표준계량 단위에 거래가 되도록 현재 호수에서 앞으로는 g단위로 하면서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한편 배달용 치킨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표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조직간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고, 계열화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및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련조직의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발기인 대회 및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품목별 개선대책을 보완하여 4월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개정(안) 재입안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5일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 2007.12.10)에 대해 기 입안예고된 개정안(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348호, 2008.12.19)과 관련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추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안 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단체 소식

###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식육의 종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6조)

- 식육의 종류를 쇠고기(한우·젓소·육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로 구분토록 명확히 하고, 국내산·수입산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에서 규정토록 보완함.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용 대상을 식육판매표지판과 비닐 등 포장시 표시사항에 대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소·돼지의 식육에서 소·돼지·닭·오리의 식육으로 확대함.  
- 표시대상이 소, 돼지만을 정하고 있어 식육의 종류, 원산지, 도축장명을 표시할 대상에서 닭·오리고기가 빠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표시대상이 일부인 경우 각 조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식육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식육의 부위별 구분 판매시 대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분할 부위를 혼재하여 판매할 경우에 관한 표시 규정이 없어 대분할 부위의 혼재 판매가 불가능하였던 것을 표시 규정을 정함으로써 이를 가능토록 함.

라. 식육판매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판매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식육의 종류, 도축장명, 개체식별

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함.

- 개체식별번호와 선하증권번호의 표시 시 묶음 번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체식별번호와 선하증권번호를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식육의 비닐 등의 포장표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3월 5일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을 표시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축산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포장육에 도축장명 표시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2008.8.20)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포장육에도 도축장명을 표시토록 함.
- 포장육에 등급 표시  
- 포장육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



토록 하여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육의 제조일 표시방법 개선
  - 포장육의 제조일을 당해 제품의 포장일로 표시하도록 함.
-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사항 보완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 전환일'을 추가로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사항을 보완함.
-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함.
-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
  - 알가공품 중 염지란의 1회 제공기준량을 50g으로 정함 등이 있다.

###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서 클로람페니콜 검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3일 수입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3.5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어 3월 11일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PERDIGAO S.A, Est. SIF 18)에 대해 수출선적중단 조치를 취하고 브라질 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닭고기(검역 중에 있거나 수출선적 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예정인 닭고기)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로람페니콜은 항생제로서 사람에게서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나 축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1991년부터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 가금 도축검사 교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금육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가금육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지원 검역관, 시·도 도축검사관 및 도계(압)장 자체검사원 등 도계검사 관계자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 도축검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금 도축검사교육은 검역원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축검사 기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원 검역관, 시·도 도축검사관 및 도계장 자체검사원에게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가금 질병에 대한 육안병리소견 판독 기술, 가금 식육 및 가공품 검사, 가금식육 잔류물질검사, 생체 및 해체 검사방법, 도계장 HACCP



## 가·관·단·체·소·식

관리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금 도축검사 교육 평가결과 참석자들은 이같은 도축검사관 등을 위한 도축검사 전문기술교육의 제도화를 희망했고,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금질병의 육안병변과 도축검사(생체 및 해체검사) 방법, HACCP 관리 등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은 도축검사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번 도축검사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도계장 HACCP관리, 생체 및 해체검사 등 도축검사방법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가금도축검사 및 도계장 HACCP 관리수준이 향상되어 가금육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삼계탕 등 가금제품 해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25일 대덕연구단지 소재의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권명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종합수의서비스기관과 국내 최대의 실험동물을 이용한 의약품 안전성평가 수탁연구기관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업무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간에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국내 최대의 동물실험 안전성평가연구기관으로 각종 실험동물에 대한 독성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중에 있는 의약품에 대한 영장류(원숭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영장류를 포함한 실험동물 및 가축 질병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의 공동 추진 ▲영장류를 포함한 실험동물의 안전 및 복지 등 수의과학 전 분야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양 기관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과제 도출 및 공동 수행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공동 참여 ▲시설 및 장비를 상호 제공 등을 협력하게 된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영업자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여 축산식품의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4차례에 걸쳐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해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방법 ▲최근 개정 내용 및 개정 추진 내용 ▲도계장,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주요 질의회신 사례 ▲최근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주요 개정 사항 등이며, '축산물 위생감시 착안사항 및 사례' 등



〈설명회 일정〉

구분	1차 본원	2차 제주	3차 호남	4차 영남
일자	4. 2(목)	4. 9(목)	4. 15(수)	4. 23(목)
시간	14:00~16:40	10:00~12:00	14:00~16:30	14:00~16:30
장소	대강당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및 사전등록 방법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한·일 국제공동연구 AI 세미나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소장 양창범)는 지난 3월 17일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의 Kenji Tsukamoto 박사를 초청해 일본 야생조류 유래 AI 바이러스의 분지역학적 분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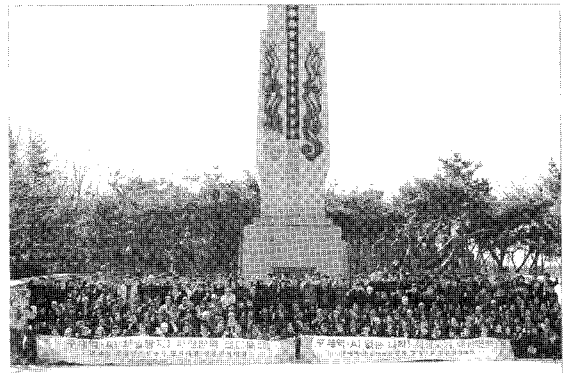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3차례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공통으로 겪은 바 있어 상호 연구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08년부터 '야생조류에서의 AI 예찰 및 공통 바이러스 بانک 구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 Tsukamoto 박사는 야생조류에서의 AI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 ▲겨울철새가 처음 도래하는 10 월경에 AI 바이러스의 분리율이 가장 높아 이 시기의 집중적인 예찰 및 주의가 필요한 점 ▲유전자 분석결과 같은 혈청형의 바이러스라도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서로 달라 야생조류에는 보다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점 ▲일본 야생조류에서는

유라시안 계열의 AI 바이러스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아메리칸 계열의 바이러스도 12.4% 존재하여 대륙간 바이러스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의 주요 결론을 소개했다.

한편, Tsukamoto 박사는 이번 2월말 일본 메추리 농가에서 발생된 H7N6형의 저병원성 AI에 대한 특성 및 방역조치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한·일 양국의 상호 연구협력을 강조했다.

AI 방역다짐 실천결의대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10일 이주호 원장 이하 3백여 직원이 모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다짐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철저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실천하여 '가족 질병 없는 청정 대한민국' 유지·건설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병원체의 유입경로 사전차단을 위해 철저한 국경검역과 해외여행객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해외가축질병 발생동향 신속 파악·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체계 운영,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예찰 강



## 기관·단체·소식

화 등 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분야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종전 본원과 서울·경기 일원 위주로 행해지던 행사를 뛰어넘어 6개 지원 및 관할 사무소에서 참여하여 전국 공항·만 국경검역과 방역의지를 총집결하는 기관 차원의 가축방역 홍보캠페인으로 진행했다.

이 대회에서 이주호 원장은 “전 지원사무소가 함께 참여한 뜻 깊은 결의대회에서 단합된 힘으로 빈틈 없는 방역체제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가축질병방역 및 국경검역 업무에 철저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어린이 기호축산물 생산업체 등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소시지·아이스크림 등 축산식품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하여 4월부터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소시지·치즈·분쇄가공육제품·발효유류·가공유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오는 4월 24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현장 위생점검을 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식품첨가물 등 원료사용, 유통기한·영양성분·허위표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보존·유통기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 2009년 가축개량협의회 전체분과위원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3월 24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열린 가축개량협의회 전체분과위원회에서 가축개량협의회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우, 젓소, 돼지, 가금 및 말 등 5개 분과위원회에서 57명의 위원이 2010년 12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가축개량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가축개량기관, 대학, 생산자단체의 전문가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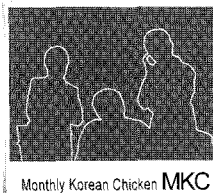
가축개량협의회는 1995년 초기에는 한우, 젓소, 돼지, 닭, 정보의 5개분과위원회가 운영되었으나 최근 닭 분과는 오리와 토종닭을 포함하여 가금분과위원회로 변화했고, 2007년부터는 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말분과위원회가 추가되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축종별 가축개량방향의 설정, 가축개량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선진기술 정보 교환 등 다양한 역할로 가축개량총괄업무를 자문할 예정이다.

#### ‘우리맛닭’ 수요 급증

농촌진흥청은 15년간 산·학·연 공동으로 멸종된 재래닭 품종복원 및 토착화 사업으로 완성시킨 토종닭 1호 ‘우리맛닭’의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공급을 원하는 농가의 수요를 맞



추기 위해 향후 2012년까지 종계 공급량을 6만수 까지 꾸준히 늘려 토종닭 수요량의 10%인 600만 수 정도를 '우리맛닭'으로 증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우리맛닭'은 지역의 차별화된 브랜드와 조리방법을 연계하여 전문 매장에서 주로 소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작년에 보급된 '우리맛닭' 종계 사양 매뉴얼에 이어 '우리맛닭'이 지니고 있는 유전적인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용계에 대한 표준 사양매뉴얼을 올해 보급하고, '우리맛닭'에 대한 상품의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 재래닭 순계 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검역시행장의 민간 관리수의사의 소속을 전환해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를 강화했다.

방역본부의 검역업무 수임은 지난해 5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물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에 따른 것이며 관리수의사 소속전환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지난해 9월 11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방역본부는 관리수의사 특별채용 및 운용에 대하여 각계 여론 수렴과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관리수의사는 60명으로 경기도 용인, 광주, 부산 3개 검역사무소에 각각 배치되어 현물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역본부는 관리수의사의 변경된 업무수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4일 용인문예회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업무수행 체계를 점검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및 관리수의사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3월 9일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강화를 위해 민간 검역시행장에서 방역본부로 소속을 전환한 관리수의사 6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2009년 사업계획 확정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올해 농협 개혁 과정에서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회원단체간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축단협은 지난 3월 18일 제1축산회관에서 2009년도 1차 회의를 갖고 2008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건 등을 승인했다.

축단협의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에는 농협 신



## 가·관·단·체·소·식

경분리 시 축산경제사업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등 정책개발활동을 비롯 회원단체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축산단체 의견 결집을 위한 활동, 농축산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타 농민단체 연대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이승호 회장은 “최근 축산의 입지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농협개혁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명칭을 축산단체협의체로 수정하는 안건은 부결돼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으로 부의됐던 축산물HACCP기준원 가입 승인의 건은 유보됐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명칭을 축산단체협의체로 수정하는 안건은 부결돼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 한국소비자원

#### HACCP 도입 매장이 위생적인 것으로 조사

축산물 유통·판매 매장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HACCP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지난해 9월부터 HACCP 지정 축산물 매장 21개소와 HACCP 비지정 매장 21개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07개 시료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를 비교 시험한 결과 HACCP 도입 매장이 보다 위생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3월 19일 밝혔다.

그러나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는 매우 낮았다. 성인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축산물HACCP 제도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의 78%는 HACCP 제도를 알지 못하

고 있었고, 60%는 HACCP 인증마크를 본적이 없다고 답변해 HACCP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나왔다.

한편 일반 식육판매 매장의 경우 축산물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고, 살모넬라균은 시험검사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사)대한영양사협회

#### 외식업소에 ‘식품영양표시’ 사업 진행

서울시와 서울시 영양사회는 시민들이 외식으로 즐기는 음식 중 기호도가 높은 음식을 대상으로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외식업소에 식품영양표시 사업을 진행했다.

대상 업소로는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음식점 및 자랑스러운 음식점 250개 업소로 각 대표메뉴 3~5개(총 151개)를 선정하여 메뉴에 대한 열량(kcal) 이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으로 확대했다.

영양표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알 권리를 찾는다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식품영양표시제는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 영양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웰빙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바지할 계획이다. ☞